

# 자동차

Car

### 콘셉트카·친환경차·CUV...

## ‘자동차의 진화’ 한눈에



#### 5일부터 10개국 186개업체 참여 시승행사·매일 차 1대 경품 추천

세계 5대 모터쇼를 지향하는 ‘2007서울모터쇼’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자동차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서울모터쇼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공인 국제 모터쇼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모터쇼는 국내 120개, 해외 66개 등 10개국, 186개 업체가 참가하며, 총 248대의 완성차가 출품돼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4월5일부터 11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콘셉트카와 신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콘셉트카 앞세운 국산차 업체=이번 모터쇼에는 국내·외 업체의 콘셉트카 17대를 비롯, 친환경차 7대,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13대 등 다양한 차량이 출품된다.

특히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업체는 차세대 디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콘셉트카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대차는 해치백과 쿠페 스타일을 혼합한 소형 콘셉트카 ‘HND-3’를 처음 공개한다. 또 제네바모터쇼에서 베일을 벗은 준중형 해치백 모델 ‘FD’도 함께 선보인다.

기아차는 차세대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KND-4’를 선보인다. 이 차는 그동안 해외에서 먼저 공개해 왔던 콘셉트카와는 달리 국내에서 첫 공개되며, 기아차의 차세대 디자인 방향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연말 출시 예정인 첫 SUV ‘H45’(프로젝트명)를 앞세워 이번 모터쇼에 출사표를 던졌다. 쌍용자동차는 스포츠쿠페 스타일의 콘셉트카와 카이런 부분 변경 모델인 ‘D130’을 선보인다.

◇‘물량 공세’ 나선 수입차 업체=13개사, 21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입차 업체는 1만4천400㎡의 전시면적을 확보해 지난 1995년 첫 서울모터쇼 이후 최초로 국내 완성차(1만4천370㎡)보다 많은 전시장을 구축한다.

또 아우디, 볼보, 푸조, 폭스바겐 등은 독일과 프랑스 본사의 모터쇼 전담팀이 직접 공수해온 차를 전시장에 설치하는 등 모터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수억 원 대의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세계적인 명차와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포르세도 함께 전시된다. 신차 출품도 다양하다. BMW는 760i를 기반으로 한 수석차 ‘하이드론젠 7’과 고급 SUV인 ‘뉴X5’를, 포드는 ‘뉴 몬데오(2.0 Ghia TDCI)’를, 아우디는 ‘A5쿠페’ 등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다.

또 푸조는 쿠페 ‘407 HDI’를, 랜드로버는 오프로드 장치를 완비한 랜드로버 ‘G4 스페셜 에디션’을, 폭스바겐은 쿠페 카브리올레 모델인 ‘이오스(Eos)’ 등을 각각 출품하는 등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래형 친환경차 한 자리에=이번 모터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첨단자동차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자동차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BMW의 수소연료차인 ‘하이드론젠7’은 섬세 영하253도로 액화시킨 수소를 엔진에서 공기와 함께 연소해 동력을 얻는 자동차다. 배기가스가 전혀 없이 수증기만 배출하며, 주행중에 스위치만 누르면 사용연료를 수소에서 가솔린으로 바꿀 수 있다.



제6회 서울모터쇼가 오는 4월5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막된다. 전 대회인 ‘2005서울모터쇼’에서는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고, 바이어 상담액 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 5대 모터쇼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푸조 - 407HDI



아우디 - A5쿠페



포드 - 뉴 몬데오



BMW - 뉴X5

현재의 수소연료전지차인 ‘투한FCEV’도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수소전지차는 물의 전기분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시승차 등 대대행사 풍성=이번 모터쇼는 관람객들을 위해 시승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승행사를 준비한 업체로는 랜드로버와 쌍용차가 있다. 랜드로버는 킨텍스 제2 옥외 전시장에서 ‘4WD 시승행사’를 마련하고 최근 출시한 ‘디스커버리3 디젤’ 등을 시승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차도 카이런의 신모델인 ‘D13’을 관람객들에게 시승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일 자동차 1대를 선물로 증정하는 ‘자동차 경품추첨’도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형 친환경차 한 자리에=이번 모터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첨단자동차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자동차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BMW의 수소연료차인 ‘하이드론젠7’은 섬세 영하253도로 액화시킨 수소를 엔진에서 공기와 함께 연소해 동력을 얻는 자동차다. 배기가스가 전혀 없이 수증기만 배출하며, 주행중에 스위치만 누르면 사용연료를 수소에서 가솔린으로 바꿀 수 있다.

투한FCEV’도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수소전지차는 물의 전기분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시승차 등 대대행사 풍성=이번 모터쇼는 관람객들을 위해 시승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승행사를 준비한 업체로는 랜드로버와 쌍용차가 있다. 랜드로버는 킨텍스 제2 옥외 전시장에서 ‘4WD 시승행사’를 마련하고 최근 출시한 ‘디스커버리3 디젤’ 등을 시승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차도 카이런의 신모델인 ‘D13’을 관람객들에게 시승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일 자동차 1대를 선물로 증정하는 ‘자동차 경품추첨’도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 국제 모터쇼의 역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1897년 첫 대회 열려

자동차쇼는 지난 1897년 제1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시작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모터쇼는 190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은 물론,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축제로 부각되면서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만 200여개에 달할 만큼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에서 공인받은 국제모터쇼는 30여개에 불과하다. 서울모터쇼는 도쿄모터쇼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1996년에 공인받았다.

올해 6번째로 개최되는 서울모터쇼는 세계 5대 모터쇼를 지향하고 있다. 5대 모터쇼란 프랑크푸르트모터쇼, 파리모터쇼, 디트로이트모터쇼, 제네바모터쇼, 도쿄모터쇼 등이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세계 최초의 모터쇼라는 점에 걸맞게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 업체들이 중심이 돼 출수 해는 승용차, 짝수 해는 상용차 중심으로 개최된다.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 ‘테크니컬 쇼’의 성격이 강하고, 참가업체 및 전시규모에서 세계 최대로 자랑한다.

파리 모터쇼는 1898년 처음 열렸으며, 1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1919년 ‘파리 오토살롱’이란 이름으로 재개됐다. 1976년부터 격년제로 바뀌어 매년 짝수 해 가을에 개최되며, 신차와 컨셉트 등 가장 많은 차종이 출품된다는 점에서 ‘자동차 세계 박람회’로 불린다.

디트로이트모터쇼는 매년 1월 초에 자동차 메카이자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본거지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다.

1907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터쇼로 자리잡았으며, 가장 큰 단일 규모 자동차시장이 북미시장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쿄모터쇼는 1954년 1회 대회가 열린 후 완성차는 물론, 모터사이클·부품·액세서리 부문에서 지명도가 높다. 197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일본 도쿄 지바현에서 열리고 있다.

제네바모터쇼는 매년 3월에 열린다. 유럽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모터쇼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서 열리는 모터쇼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서울모터쇼 현장 담은

#### ‘UCC 콘테스트’ 개최

최근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른 UCC(사용자제작콘텐츠)가 ‘2007서울모터쇼’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낸다.

30일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모터쇼의 화려함과 역동성을 독특한 개성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사진 및 동영상



상을 선발하는 ‘2007서울모터쇼 UCC콘테스트’가 개최된다.

이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관람객은 서울모터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동 주관사인 ‘미스디카’ 홈페이지(www.missdica.com) 또는 ‘판도라TV’ 홈페이지(www.pandora.tv) 내 UCC콘테스트 응모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1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329명 여자31명

시행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원서접수: 4월 9일~4월 15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서울고시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제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227-8003 (주도청 앞 전일빌딩 4F)

971-0002 (백마트 점단점 옆 광주은행 4F)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4월 2일 첫진도 시작반(주간반,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을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모집인원: 1단계 오전반 20명(선착순)

수업시간: (매주 화, 목) 09:30 ~ 12:30(3강좌)

2.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수료증 수여(홍장명명)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 (062) 950-3584, 3585, HP: 011-614-4160